

방한 외국인, 의료현장에서 카드 꺼냈다… 이용금액 54% ↑

비씨카드, 외국인 소비 트렌드 분석
상반기 의료업종 이용금액 98% ↑
성형 벗어나 피부·미용 중심 결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의료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형 중심이던 의료관광 소비 트렌드가 피부·미용, 약국 이용 등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도 특징이다.

3월 비씨카드가 발간한 방한 외국인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의료 업종 이용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98% 증가했다. 숙박, 보건·위생, 의류 등 타 관광 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의료 업종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씨카드가 약 330만 외국인 이용카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카드 이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결제건수는 40.3% 늘었다.

특히, 중국 관광객 회복이 방한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소비 증가율을 견인했다.

중국 관광객의 이용 카드 수는 56.6% 증가했다. 싱가포르(+46.8%), 대만(+44.3%), 일본(+40.1%), 미국(+30.6%)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카드 이용금액은 82.7% 급증했다.

의료 소비는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의료업종 전체 이용 금액 중 상반기 서울 의료 소비액은 2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9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 27.5%, 부산광역시 27.4%, 경기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13.1%, 기타 지

역 3.0% 올랐다.

의료소비의 무게중심도 성형에서 피부·미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전체 진료과목 비중을 살펴보면 피부 미용 소비 비중은 지난해 61.7%에서 67.5%로 확대됐다. 반면, 성형외과 소비 비중은 30.1%에서 21.3%로 감소했다.

비씨카드 측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관광이 고액 중심에서 일반 관광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 증가로 소비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약국과 한방의료 소비 비중도 증가 추세다. 약국은 2.0%, 한방의료는 0.6%로 전년 대비 각각 1.7%포인트(p), 0.2%p 비중이 확대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피부 미용 분야에서는 일본·미국 고객 비중이 확대되면서 다국적화가 진행됐다. 약국 분야에서는 대만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동시에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의 매출 비중이 올랐다.

의료 관광의 방문 규모와 소비 수준에서는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타국가 대비 방문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건당 결제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대중형 의료관광 시장의 특징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국내 의료소비 매출액 기준 1위 국가로, 방문 규모와 건당 결제금액이 모두 높아 핵심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했다. 중국과 홍콩은 방문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건당 결제금액이 높아 고부가 의료관광 시장으로 평가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0일 수원 대우건설 인재경영원에서 김보현 사장이 신입사원과 대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신입사원 소통 간담회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들과 만나 회사의 비전과 조직 문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김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인재경영원에서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신입사원들이 준비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신입사원은 대우건설의 미래이자 재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건설업의 기본인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스마트건설 시대에 선제 대응해 대우건설이 스마트건설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신입사원들이 직접 기획한 ‘한마음의 장’ 행사가 열렸다. 팀별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에 경영진과 신입사원이 함께 참여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성채리 수습기자

유가 하락에도 물가경계 지속… 금리 경로 ‘안갯속’

한은, 에너지가격 간접효과 우려
신현송 총재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

국제유가가 3일 5% 안팎 급락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경계는 곧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가 하락은 앞으로의 직접적인 물가 압력을 낮추지만, 2월 말부터 기업 비용에 스며든 고유가 충격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간접효과’가 있어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사진)는 에너지가격 충격의 간접효과가 일반적으로 6개월 뒤 가장 크게 나타나고 1년 이상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중동발 유가 충격이 본격화한 2월28일부터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까지는 정확히 180일이다.

◆ 호르무즈 함의 기대감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3.44달러로 5.1% 떨어졌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79.77달러로 5.8% 하락하며 8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보류하고 핵 협상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신속한 합



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발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든 영향이다. 석유수출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9월부터 생산량을 하루 18만 8000배럴 늘리기로 한 결정도 하방 압력을 보였다.

OPEC+ 핵심 7개국의 이번 조정으로 지난 2023년 결정한 하루 165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 복원은 9월 마무리된다. 다만 걸프지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수출 차질로 앞선 증산분 상당 부분이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증산물량이 당장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유시장은 향후 공급과 지정학적 위험 변화를 선반영한다.

앞서 발생한 비용 충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브렌트유와 WTI는 중동 긴장이 재점화한 지난달 각각 20% 넘게 올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4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1% 증가했다.

6월 수입물가도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0% 넘게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원재료비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

◆ 근원·생활물가…8월 금리 인상 가른다

한은이 주목하는 것도 국제유가의 하루 움직임보다 물가의 파급경로다. 에너지가격 상승은 휘발유와 항공료 등에 곧바로 반영되는 직접효과를 거쳐 운송비·원재료비·전기료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간접효과를 낸다. 이후 임금과 가격 설정, 기대인플레이션까지 바뀌면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이 최고 영향을 미치고 한 1년 이상 간다”고 말했다. 유가가 이날 급락했더라도 이미 누적된 비용 상승의 간접효과는 진행 중이라는 판단이다.

첫 시험대는 7월 소비자물가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고, 근원물가는 2.5%, 생활물가는 3%대 중반을 기록했다.

7월에는 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전체 상승률이 6월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기 회복세도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변수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소득과 소비가 개선되면 기업이 누적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쉬워진다. 유가 하락만으로 수요 측 물가 압력까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8월 금통위의 선택은 유가의 절대 수준보다 하락세의 지속 여부와 근원·생활물가에 달렸다. 한은은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한 근원물가와 가계의 체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생활물가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며 “앞으로 나올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전국에서 2만8000가구 쏟아진다… 수도권 80% 차지

직방 분양물량 전년동기 대비 58% ↑

8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3개 단지, 2만8015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 1만7759가구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8861가구로 전년보다 43%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만2492가구가 공급돼 전국 예정 물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기도가 14개 단지, 1만62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7개 단지, 6770가구에 이어 인천 3개 단지, 5096가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에 이치클래스'에 총 5002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영등포구 신길동 '썬미트클라비온' 812가구, 중구 중림동 '중정로얄자이르네' 299가구,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 250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소사구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에 2008가구가 공급된다. 평택시 고덕동에 '엘리프고덕센트럴하이'와 '평택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 에미지' 등 3개 단지, 총 2264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은 6개 지역, 9개 단지에서 총 552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실수요자 지원책을 검토하면서 하

반기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며 “최근 대출 규제와 한도 축소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나오면 청약 수요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7월은 예정 물량 2만9671가구 가운데 1만8227가구만 분양돼 공급 실적이 61%에 그쳤다. 지난 6월 분양 실적을 83%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통상 7~8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에 따라 8월 예정 물량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우리은행 ‘우리의 소원 예·적금’ 특판

우리은행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8·15 광복절을 기념해 고객 참여형 금융상품인 ‘우리의 소원 정기예금·적금’을 특판한다.

이번 상품은 유네스코가 2026년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구 선생의 삶과 정신이 조명받는 뜻깊은 해를 맞아, ‘백범 일지’에 담긴 ‘나의 소원’과 김구 선생이 꿈꾼 ‘아름다운 나라’의 가치를 고객들과 함께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우리의 소원 정기예금’은 6개월과 12개월 만기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금리는 6개월 연 3.10%, 12개월 연 3.40%이며, ‘우리의 소원 남기기’ 참여 시 연 0.2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금리는 6개월 연 3.30%, 12개월 연 3.60%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총 1조원 한도로 오는 이달 말까지 선착순 판매한다.

‘우리의 소원 적금’도 6개월과 12개월 만기로 특판한다. 기본금리는 6개월 연 4.29%, 12개월 연 3.00%다. ‘우리의 소원 남기기’ 참여 시 연 2.00%p, 직전 6개월간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조건 충족 시 연 2.0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모든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상품은 최고 연 8.29%, 12개월 상품은 최고 연 7.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